

북한, 중국 없이 생존할 수 있나?

- 북한경제현황과 북미관계전망 및 평가 -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와세계전략연구원 방문학자 이근영

- 북한 경제 현황

- 북한의 지리와 쌀

- 기술수준별 산업변화

- 한,중,일,러에 대한 북한의 기술 수준별 상관 관계

- 북미 관계 전망 및 평가

- 중국의 개혁개방과 북미 관계

- 북미 관계 전망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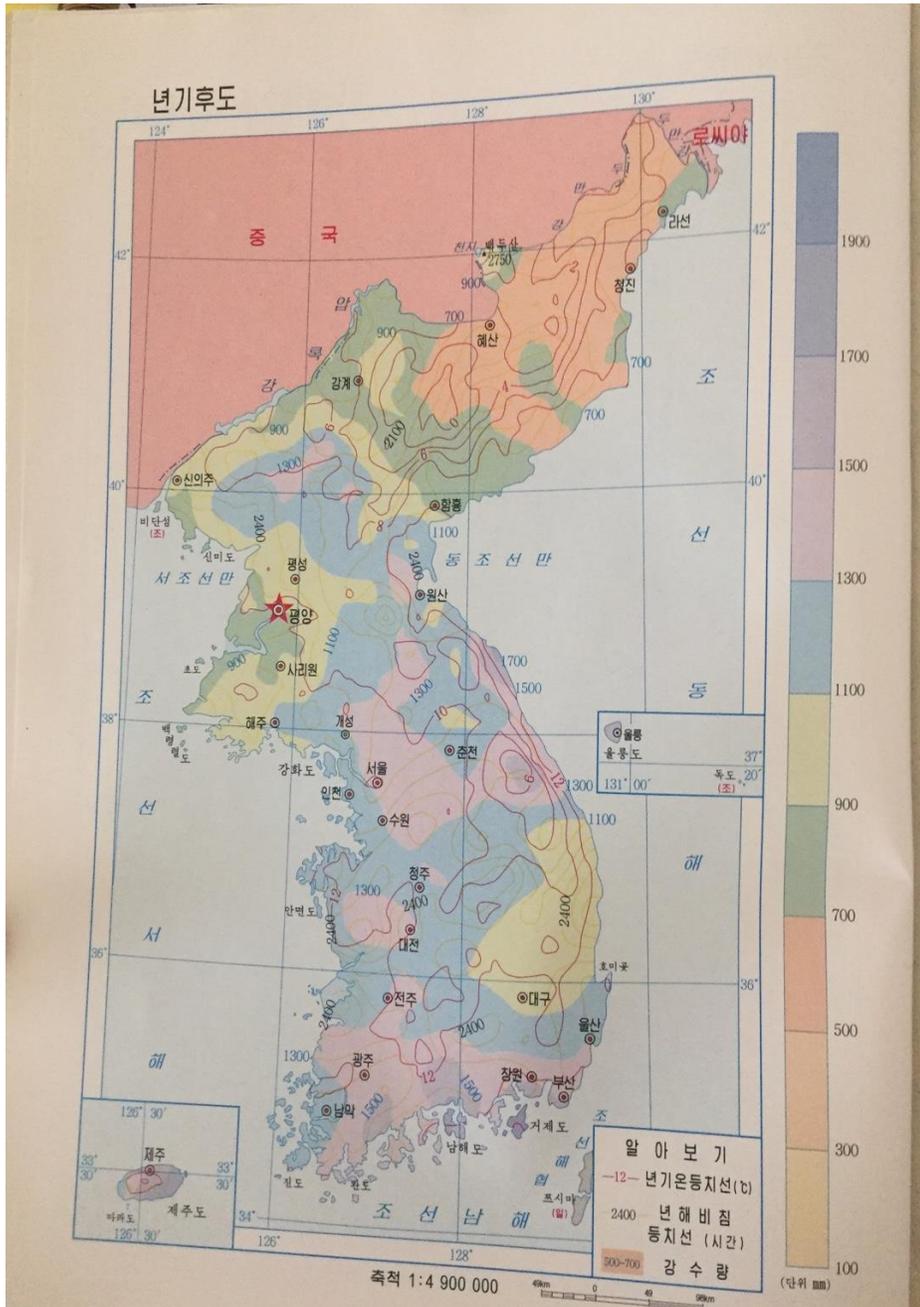
1. 북한의 경제 현황_북한의 지리와 쌀



지역별 1월 평균 기온(도) (1971~2000년 북한 통계 자료)

지역	서해안				
지점	신의주	평양	해주	인천	목포
기온	-6.8	-5.9	-3.4	-2.4	1.8

지역	동해안				
지점	라선	함흥	원산	강릉	포항
기온	-7.3	-4.2	-2.3	0.3	1.6



9. 눈 + 물 + 비료 + 태양 + 농부
 ↓
 1) 산지(70%) 제외
 산지의 80% 논이거든, 전히 논벼하리 양음
 (29.55% 14km²)
 산지 수확량
 452리 = 균인 = 동원

1m² 안에
 10000리 수확량
 100리

1km² = 1km x 1km
 = 1000 x 1000
 = 1,000,000
 100,000,000
 1억개 수확량
 30,000리

300리 양음
 = 300리
 300리 배
 300리 x 1000
 300,000리
 3000 ÷ 25
 = 120리 배

국제구호단체: CARE
 "침묵속고동 - 2017 제대로 반도대기 양음
 인도적 위기 10" 위 북한
 전체 주민 70%인 1,800만9000 북한인 식량 농 + 온난화 홍수

환율(2018. 5. 기준)

\$1 = 1080원(한국)

= 6.4元(중국)

= 10,000원(북한)

1yuan = 1,250~1,400원(북한)

연길 쌀10kg = 58元

쌀25kg = 87.5~100元

= 약109,375~140,000원(북한)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월급 \$1 = 10,000원

당시, DailyNK에 의하면 1元=1,500원(북)

연길 물가 68.9%에 해당하는 북한 사회 물가(평양 제외)

쌀 10kg = 58元

채반찬 = 10元

버스비 = 1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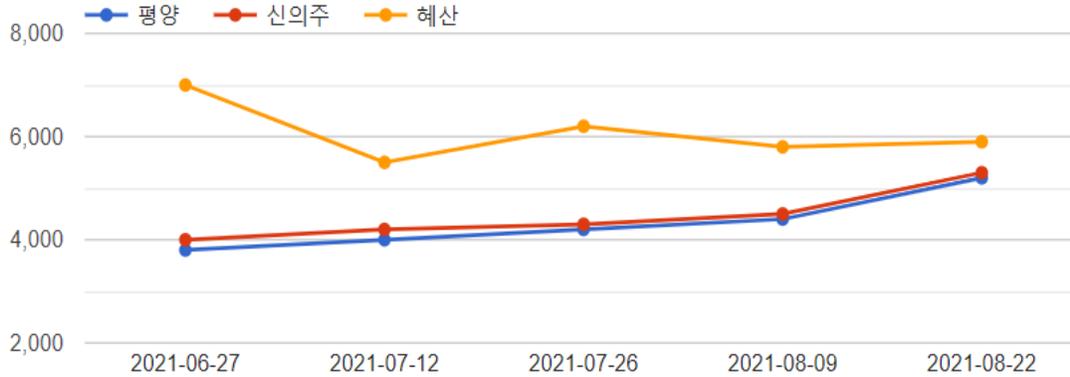
수박 반 통(2元/500g) = 16元

택시비 = 5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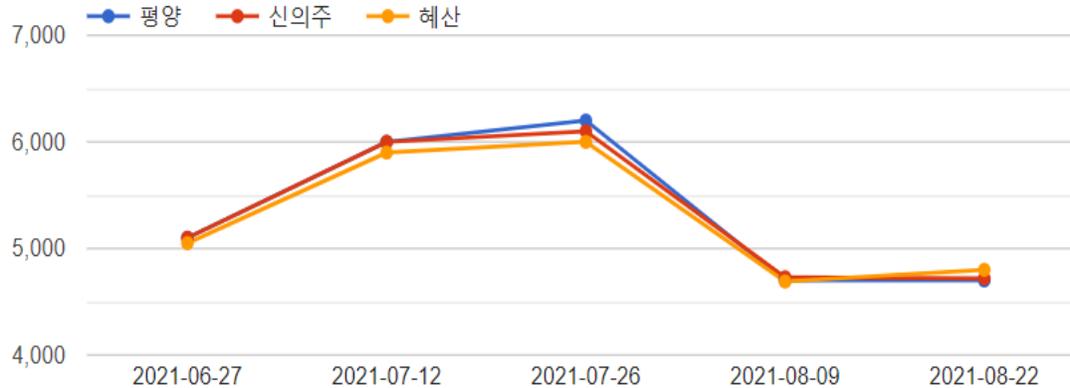
연길이 북한보다 물가가 30%정도 비싸나, 쌀값은 비슷

상대적으로 북한에서는 연길물가에 비해 쌀값이 비쌘

쌀값(원, 1Kg당)



1USD 환율(원)



2021년 8월 현재,
북한의 환율과 쌀가격은 안정적으로 평가

온대계절풍기후대에 속하는 전형적인 계절풍기후
(광명대백과 8, p. 83)와 기후 변화를 비롯한 Covid
19의 비전통안보 이슈는 북한 경제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나, 경제 구조의 근간을 흔든다고 평가할
수 없음

1. 북한의 경제 현황_기술수준별 산업변화(1996~2019)

- 국가의 기술수준별 산업 변화(UNCOMTRADE Data, Regression Analysis)

: 한국,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의 기술수준별 변화

(‘1’에 가까울수록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정도는 숫자의 크기로 나타냄, 빨강색과 노랑색으로 기술수준의 변화)

-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기술 수준별 상관 관계

: 상관계수는 ‘-’와 ‘+’값으로 상관관계의 방향성을 나타내며, 숫자의 절대값은 그 정도를 의미함

2. 북미 관계 전망 및 평가_중국의 개혁개방과 미중 관계

• 1978년 12월 덩소평의 흑묘백묘론

정치에 복귀한 덩소평은 1978년 주요 인재들을 서유럽 5개국 시찰단으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자본주의 강국들을 방문하여 직접 주요 산업시설들을 시찰하였다.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전에 자본주의 경제 연구를 철저히 하고 중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준비한 것이다. 그는 '삼보주(三步走)' 목표를 세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기했다. 우선 제 일보인 '원바오'는 '인민이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초보적인 단계'이고, 제 이보인 '샤오캉'은 '생활 수준을 중류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며, 제 삼보인 '대동사회의 실현'은 **중국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일이다.

시장경제를 도입했지만 중국은 사회주의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자본주의 경제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금융위기가 터지고 문제점이 표출될 때에도 중국은 국가의 개입과 주도, 장기적 계획 등으로 다른 자본주의 국가와는 차별성있는 대안을 제시하길 원했다(덩소평 전기 인용한 연구재인용_이근영_2020)

2. 북미 관계 전망 및 평가_중국의 개혁개방과 미중 관계

- 2018년 12월 30일 미중 수교 40주년 중국 외교부 담화(陸慷) :

2019년 중국과 미국 수교 40주년을 맞이한다. 40년 동안 중미관계는 비바람(風雨)을 경험하고 단련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갔다. 중국과 미국의 교류와 협력은 역사적인 발전을 성취했다. 40년 전 중국과 미국의 사람들 왕래는 매년 겨우 몇 천 명이였다. 2017년 쌍방 사람들 왕래는 530만 명을 넘어섰다.

40년 전 중국과 미국의 무역액은 25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2017년 쌍방 무역액은 이미 5800억 달러를 초과했다. 40년 전 중국과 미국의 상호 투자액은 거의 제로였다. 2017년 양국 간 각종 투자 총액은 누계로 2300억 달러를 초과했다. 40년 동안 지역 핫 이슈의 적절한 해결 추동으로부터 국제 테러리즘 반대까지, 국제 금융위기 대응으로부터 글로벌 경제 성장 촉진까지, 중국과 미국은 양자,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전개했다. 사실이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중미관계의 발전은 양국 인민들에게 거대한 이익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을 힘 있게 촉진했다.

2. 북미 관계 전망 및 평가_중국의 개혁개방과 미중 관계

중미관계 40년이 이룩한 발전은 쉽지 않았다. 그 가운데 역사적 경험은 흡수할 가치가 있다. 쌍방은 전략적 소통(戰略溝通)을 강화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戰略互信)를 증진하고, 전략적 오판(戰略誤判)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차의 전략적 의도를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대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중미 협력의 큰 방향을 견지하고, 상호 이익과 협력의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양국 인민에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피차의 주권(主權), 안보(安全), 발전 이익(發展利益)을 존중하고, 갈등(分歧)을 적절히 처리하고 관리하고, 양국 관계의 큰 틀의 교란을 방지해야 한다. 양국 인민의 왕래를 확대하고 중미관계의 사회적 기초를 끊임없이 충실히 해야 한다.

40년 발전을 통해서 중미관계는 이미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서 있다.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중국은 미국과 한 길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정상 만남에서 합의에 이른 중요한 공통 인식을 잘 실천하고, 호혜와 윈윈(互惠互利)의 기초 위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협조(協調), 협력(合作) 안정(穩定)을 기조로 하는 중미관계를 추진하여, 중미 협력이 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 더 많고 더 좋은 복을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2. 북미 관계 전망 및 평가_북한의 기대



중국 일대일로 사업 참여국 현황

71개의 일대일로 사업 참여국에 대한 중국의 누적 투자액



Google

출처: 2018년 10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글로벌 보고서

BBC

2. 북미 관계 전망 및 평가



- 북한의 대외 관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 정책의 신뢰성과 시간과의 관계
- 김정은과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의 경험 : 협상력의 가치 요인
- 대외 환경의 변화 :
 -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문제는 외교의 선택과 집중
 - 김정은식 북한 경제 발전과 비전통안보 이슈 대응에 대한 과제

2. 북미 관계 전망 및 평가



-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의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김정은 : 실무급의 직접적인 물밑 조율
- 북미 관계를 비롯한 북중 관계 진전 : 중국의 국제적인 입지를 고려한 외교 관계 정립에 집중
- 한국의 차기 정부에 대한 북한의 남북 관계 전략 준비
- Covid 19로 인한 북미 관계의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단계적인 대화를 나설 가능성 : 구체적인 대화 의제에 대한 사전 논의가 구체화된 후에 가시화

3. 결론_북한, 중국 없이 생존할 수 있나?

- 김일성 사망(94.7.8.)과 김정일 사망(11.12.18.)으로 인한 북한의 경제의 타격은 현재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쌀값과 환율을 기반으로 하는 북한시장의 경제는 전반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존재하나,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 덜 민감한 것으로 평가
- 기술수준별 북한 경제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내수경제에 필요한 상품 유통은 진행 중으로 보임
- 기술수준별 북한과의 국가별 상관관계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에 대한 북한의 상이한 관계 수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북한에게 북미 대화는 1979년 1월 1일의 미중 수교를 위한 첫 걸음
- 미중 관계에 대한 경제정책의 성과가 연계